

변화와 주체성

20207 금한서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머리말이 끝나고 ‘세 변화에 대하여’로 가르침을 시작한다. ‘세 변화에 대하여’에서는 인간의 정신 변화 과정에 대해 이야기 한다. 변화 과정은 세 단계로 나뉘는데 그것은 낙타, 사자, 그리고 아이이다. 사자가 낙타보다, 아이가 사자보다 더 뛰어난 정신 상태이며 자아 정체성을 확립해나가는 단계이다. 즉 변화의 세 단계는 발전의 세 단계이기도 하다.

먼저, ‘낙타’의 정신 상태는 무거운 짐을 진 상태이다. 여기서 무거운 짐이란 마땅히 해야 하는 의무이다. 이 의무는 스스로 만들어 낸 것이 아닌 외부에 의해 부여되는 것이며 ‘낙타’는 이것을 신성한 것으로 여기며 사랑한다.¹⁾ 그리고 자신이 져야 하는 그 무거운 짐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시작한다. 의무란 겸손인지, 명성인지, 절제인지, 배움인지, 진리인지에 대한 고뇌와 함께 자신의 사막으로 나아갈 때 두 번째 변화가 일어난다.

‘낙타’는 ‘사자’가 된다. ‘사자’의 정신 상태는 강요돼왔던 의무에 반항한다. 니체에 대한 배경지식으로 해석한다면 그 의무는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임을 알 수 있다. ‘사자’는 신에게 반항하면서 자유를 쟁취한다. 이렇게 얻게 되는 자유는 생각보다 훨씬 가치 있다. 차라투스트라는 창조자가 되려는 자는 ‘먼저 파괴자가 되어 가치들을 부숴버려야 한다.’²⁾고 말했다. 즉 자유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 조건이자 권리인 것이다. 그리고 이 변화는 타자성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기 자신에 대한 첫 발견이며 주체적인 인간이 되는 시작이기도 하다. 자유를 느끼고 얻는다는 것은 자신의 존재를 스스로 확인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다음 단계는 ‘아이’이다. ‘아이’의 정신 상태는 새로운 가치를 창조한다. ‘사자’는 자유를 쟁취하였지만 그 방법은 그저 기존의 가치와 의무를 부정하는 것에 그친다. ‘사자’는 딱,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까지만 할 수 있다. 그리고 자신만의 가치를 창조해내는 것은 오직 ‘아이’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정신은 이제 자기 자신의 의지를 의욕하며, 세계를 상실한 자는 자신의 세계를 획득하게 된다.”³⁾ 여기서 자기 자신의 의지란 자유를 뜻하며 상실한 세계는 의무가 강요되던 세계를 말한다. 그 세계를 ‘상실’하는 것은 ‘사자’, ‘자신의 세계’를 획득하는 것은 ‘아이’이다.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내는 것이 비로소 ‘자신의 세계’를 쟁취하는 일인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 낸 ‘자신의 세계’는 정체성의 확립을 의미한다.

정체성, 또는 자아는 생각할 수 있는 순간부터 존재한다. 그것이 존재하느냐와 확립되었는가는 다른 문제이다. 생겨난 정체성은 낙타, 사자, 아이의 세 단계를 거쳐

1)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세 변화에 대하여 40p 15

2)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자기극복에 대하여 196p 23

3)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세 변화에 대하여 41p 1

변화하였고 마침내 자신만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할 때, 확립된다.

여기서 ‘창조’란 단순히 만들어낸다는 의미는 아닐 것이다.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하지만, 정체성은 누구나 확립할 수 있다. (그 근거로 니체가 군중을 가르치려했다는 것을 들 수 있겠다. 그는 사람들을 극복시키기 위해 위버멘시를 가르쳤다.) 그 말인 즉, 세상에 없던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만이 자신의 세계를 확립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뜻이다. 새로운 가치의 창조는 스스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일일 것이라 생각한다. 여러 경험과 변화, 고뇌를 거쳐 가치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자신만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한 인간이 자율적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정하는 일이고 스스로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일이며 자신만의 진리를 만들어내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곧 그에게는 세계를 창조하는 일이다.

새로운 가치의 창조를 비롯한 세 단계는 자기극복의 과정이기도 하다. 불변의 선과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⁴⁾ 따라서 자신만의 가치 창조가 더욱 중요하며 이 과정은 자신이 믿어왔던 기존 세계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자기극복의 과정이기도 한 것이다. 그래서 타인의 가치를 평가하는 자들은 하등 쓸모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이고 폭력을 휘두르는 자들과 다르지 않다. 따라서 타인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남의 말에 휘둘리는 것은 받고 있는 폭력을 피해자 스스로 정당화하는 일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체성은 자기극복과 변화의 세 단계를 거쳐 확립된다.

정체성의 형성과 확립 과정은 곧 주체성의 확립을 의미한다. 물론 세 변화의 단계에서 수동적으로 형성된 가치관을 부정하고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한다는 것에서 직접적으로 주체성을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결국 주체성은 단단히 확립된 정체성에서 비롯된다고 말할 수 있다. 자신이 중요히 여기는 가치의 우선순위를 만들어 자신의 세계를 만든 사람은 직면한 상황에 대해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능동적으로 취해야 할 행동을 찾는다. 주체성이란 다름 아닌 그것이다.

4)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자기극복에 대하여 196p 15